

시간부사 ‘曾經’, ‘已經’ 時相 자질 중한 대조분석

한 경 숙
(단국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현대중국어 시간부사 ‘曾經’과 ‘已經’의 관련 통사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통사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관련 구조 의미소 ‘時相(tense and aspect)’ 특징을 분석하였고 두 부사의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아울러 중한 두 언어에서 이들이 나타내는 자질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냈고 이를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Descriptive adequacy)을 확보하고 나아가 설명적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으로 이끌어 내 고자 하였다.

‘曾經’은 상 범주의 하위 범주인 ‘과거경험상’, ‘성사상’, ‘과거지속상’ 등 자질을 갖고 있고 시제 범주의 하위 범주인 ‘과거시제’ ‘과거경험상’ 등 자질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어의 ‘_있(았)_’, ‘_있었_’, ‘_적이 있_’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曾經’은 하나의 통사구조에서 상과 시제 두 가지 자질을 갖고 있다. ‘已經’은 ‘완료상’과 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과거경험상’, 그리고 미완료상의 하위범주인 ‘과거지속상’ 등 자질을 갖고 있고 시제 범주의 하위 범주인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등 시제 자질도 갖고 있으며 ‘상태의 변화’ 자질도 갖고 있다. 한국어의 ‘_있(았)_’, ‘_고_’, ‘_있었_’, ‘_곧_’ 등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曾經’과 동태조사 ‘過’를 비교하자면 ‘曾經’은 상 범주와 시제 범주를 겸하고 있다지만 ‘過’는 그 수식 범위가 술어밖에 없기에 상적 특징만 갖고 있다. 그리고 심층구조에서 ‘曾經’은 술어의 앞에서 술어를 포함한 술어 뒤에 출현한 조사, 목적어, 보어 모두와 통어 관계를 갖고 있지만, ‘過’는 그 앞의 술어만 수식한다. ‘已經’이 ‘진행상’ 자질을 가진 부사 ‘在’를 수식할 수 있지

만, ‘曾經’은 불가능하다.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는 이렇게 시간 표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어의 ‘과거경험상’, ‘성사상’, ‘과거지속상’ 등 상 자질과 ‘과거시제’ 자질을 갖고 있는 시간부사 ‘曾經’, 그리고 ‘과거경험상’, ‘과거지속상’ 등 상 자질 그리고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등 시제 자질을 갖고 있는 시간부사 ‘已經’ 등이 한국어에서는 ‘완료상’, ‘지속상’ 자질과 ‘과거시제’ 자질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의 시간 체계는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의 사유 방식의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曾經, 已經, 상 자질, 대조분석, 과거진행상, 과거지속상, 성사상,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1. 서론

본고는 현대중국어 시간부사 ‘曾經’과 ‘已經’의 관련 통사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통사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관련 구조 의미소 ‘時相(tense and aspect)’¹⁾ 특징을 분석하고 두 부사의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중한 두 언어에서 이들이 나타내는 자질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Descriptive adequacy)을 확보하고 나아가 설명적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런 대조분석의 결과를 한국인의 중국어 교육에도 반영시키려고 한다.

시간이 언어구조로 형식화될 때 다시 시제, 상, 서법으로 표현된다. 서법은 양상으로도 일컫는다. ‘시상법(時相法—시제, 상, 서법)’은 동사에서 실현되는 범언어적 문법범주이지만, 모든 시제와 상이 오직 동사의 자질에 의해서만이 그 특징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통사적으로 주로 동사의 자질이 상과 시제를 결정짓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타 통사적 범주도 시제와 상에 영

1) 논문을 심사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時相’은 ‘시제(時制—tense)’와 ‘상(相—aspect)’을 일컫는 말이다. 시간과 관련된 범주는 ‘시상법’ 즉 시제, 상, 서법 등 세 가지 범주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서법 자질을 고찰하지 않고 ‘曾經’과 ‘已經’의 시제와 상 자질을 고찰, 분석하려고 한다.

향을 줄 수 있다. 술어 동사의 자질로 미루어보아 시제, 상 자질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구문도 주어나, 보어, 부사어 등 통사범주의 특징에 의해 시제나 상 자질을 구현할 수 있다.²⁾ 언어에 따라 세 범주는 모두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만 나타나기도 한다. ‘시상법’에 대한 연구 특히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는 언어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기에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사구조 의미 전달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시간부사 ‘曾經’과 ‘已經’의 시제와 상적 특징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언어는 두뇌세계를 구현해내는 도구이다. 이 두뇌세계는 현실세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두뇌세계이든 현실세계이든 그 내용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어우러진 시공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세계의 ‘世’, 즉 시간은 술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의 ‘界’, 즉 공간은 주어 및 목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³⁾ 그렇다면 본고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부사 ‘曾經’과 ‘已經’은 문장에서 술어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들 부사가 시제, 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상 자질은 무엇이며 이들은 서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의미와 관련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 결과가 한국인의 중국어 교수법에 반영된다면 보다 좋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어의 시간부사는 과거, 현재, 미래 등 자질을 갖고 있다. ‘曾經’과 ‘已經’ 역시 과거, 현재, 미래 등 자질을 갖고 있을까? ‘曾經’과 ‘已經’이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타 자질도 갖고 있을까? 만약 갖고 있다면 이들은 어떤 통사적 특징을 통하여 그 자질을 구현하고 있을까? 그리고 과거라는 자질 중 이들이 갖고 있는 자질이 과거의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 시제 범주인지 아니면 동작이나 상태 변화의 완료나 미완료를 나타내는 상 범주인지는 이들의 통사적 특징에 반영되는 시제 자질과 상 자질 대한 분석을 통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한경숙, 「중국어 부사 ‘在’, 동태조사 ‘着’ 相 자질 중한 대조 분석」, 『東洋學』, 제61집, 2015(c), 48쪽 참조.

3)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집, 2013, 495쪽.

II. 선행 연구 및 분석 방법

중국의 CNKI(中國知網)에는 ‘曾經’, ‘已經’에 관한 학술 논문이 鄧世平, 薛敬敬(2010)의 「句法平面上‘已經’和‘曾經’的區別」; 曹凤霞(2002)의 「時間副詞‘曾經’, ‘已經’的時態用法」; 曹凤霞(2003)의 「副詞‘曾經’与‘已經’的語法意義及其他」 등 세 편이 나와 있다. 한국의 국회도서관에는 유위, 한서영, 김정주(2013), 「말뭉치를 통한 현대중국어 早就·已經·曾經의 통사-의미 비교 연구」과 한경숙(2015)의 「현대중국어 조사 ‘了, 過’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 ‘已經, 曾經’과의 공기 관계를 중심으로」 등 두 편이 있다. 鄧世平, 薛敬敬(2010)은 통사적인 측면에서 ‘曾經’과 ‘已經’의 차이를 고찰하였고, 曹凤霞(2002,2003)는 ‘曾經’과 ‘已經’의 문법적 의미와 時態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曾經’과 ‘已經’의 의미 그리고 통사적으로 어떤 문장성분과 공기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曹凤霞(2003)는 ‘曾經’과 ‘已經’을 상적인 관점에서 상과 비슷한 개념인 ‘時態’에 접근해봤지만, 이 역시 두 단어의 의미와 이들이 통사적으로 다른 어떤 어휘와 공기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유위 등은 ‘曾經’과 ‘已經’의 통사와 의미를 고찰하였고, 한경숙은 ‘曾經’, ‘已經’과 공기 관계를 형성했을 때의 동태 조사 ‘了, 過’의 상 자질을 고찰하였다. ‘曾經’과 ‘已經’의 상 자질과 시제 자질을 중한 대조분석의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 없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이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曾經’과 ‘已經’의 시제 자질과 상 자질을 분석하고 또한 이런 시상 특징의 한국어 시상과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 중한 대조분석 해보려고 한다. 분석을 통하여 ‘曾經’과 ‘已經’의 변별적 자질을 찾아내고 아울러 이들이 한국어의 부사 ‘이미’, 선어말어미 ‘_었’, ‘_었었’ 등과는 어떤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즉 ‘曾經’과 ‘已經’이 한국어의 어떤 상 자질, 시제 자질과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현대중국어의 상에 대한 문법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가 시제 범주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하위체계를 갖는 시제, 상 체계를 세우거나 하여 정설화가 된 이론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에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범주 설정에 관한 불일치는 범주가 갖는 기능보다는 형태들이 갖는 시제와 상에 대한 문법 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가 시제 범주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범주 설정에 관한 불일치는 범주가 갖는 기능보다는 형태들이 갖는 의미의 규명에만 몰두한 결과일 것이다.

그림(1)⁴⁾은 발화시간축 상의 과거시제와 미래시제, 그리고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상호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B’는 사건시가 현재시점인 발화시간까지 이어져 그 간격이 없기에 완료상이며 ‘A’는 발화시간축을 기준으로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미완료상이고, ‘B’는 사건시가 현재시점인 발화시간까지 이어져 그 간격이 없기에 완료상이며 ‘C’는 현재시점인 발화시간축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과거시제이고 ‘D’는 현재시점인 발화시간축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미래시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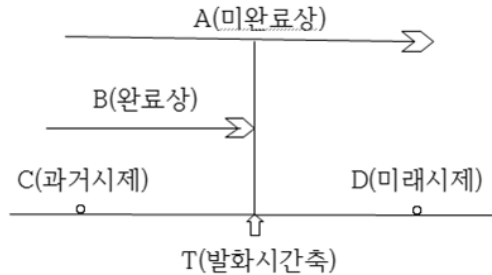


그림 (1) 상과 시제

“시제와 상은 모두 시간과 관계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동사들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변화는 시간적으로 그 시작과 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시제를 나타내며, 공간적으로 동작이

4) 그림(1)은 한경숙(2015a: 505)의 상과 시제에 관한 그림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한경숙, 「현대중국어 ‘來着’ 相적 특징 중한 대조분석」, 『비교문화연구』, 33집, 2015(a), 505쪽.

나 상태 혹은 상태변화의 목적에 대한 완료나 미완료나 즉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지에 따라 상 자질을 나타낸다. 시간적인 완료가 반드시 공간적인 완료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장호득(2000)은 상을 ‘시간의 공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고도 그의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제가 시간선 상의 외적 구성 즉 시간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면 상은 내적 구성 즉 동사의 동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제의 기준인 시점 설정도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제도 기준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박덕유(2007)의 분류를 참조하여 상을 크게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누겠다. ‘완료상’은 또한 그 하위범주로 ‘과거경험상(Past experience Aspect)’과 ‘成事相(Past continuous Aspect)’⁵⁾을 설정하고 미완료상은 그 하위범주로 ‘과거진행상(Past Conduct Aspect)’, ‘과거지속상(Past continuous Aspect)’⁶⁾ 그리고 현재진행상, 반복상, 예정상을 설정하겠다. 동사의 상 자질로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등을 설정하여 동사를 상태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순간동사, 이행동사⁷⁾로 나눌 수 있다.”⁸⁾

- 5) “필자는 『論語』의 이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을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성사시키다’라는 개념에 대입시켜 ‘일을 성사시킨 후에도 다른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成事相’을 설정하였다.”,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的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집, 2013, 499쪽.
- 6) “본고가 중국북경대학교 CCL 말뭉치에 출현한 ‘的’에 대한 고찰에 의하면, ‘的’구는 총체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을 묘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과거진행’, ‘현재 이미 완성된 동작’ 그리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지속’등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에 ‘的’구 중의 동사는 모두 지속성을 갖고 있는 ‘지속동사’다. 즉 ‘비지속동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완료상의 하위범주로 동작이 과거 어떤 시점에서부터 다른 한 시점까지의 진행을 ‘과거진행(Past Conduct Aspect)’으로 과거에 어떤 동작이 한 동안(혹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과거지속(Past continuous Aspect)’, ‘과거경험상(Past experience Aspect)’으로 설정하겠다.”, 한경숙, 「현대중국어 虚词 ‘的’ 상(aspect) 자질 중한 대조분석」, 『중국어학』, 제47집, 2015(b), 22쪽.
- 7) 본고의 동사 분류는 박덕유(2013)의 분류를 참조하였다.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 서울: 제이앤씨, 2013, 26~30쪽.
- 8) 한경숙, 「현대중국어 虚词 ‘的’ 상(aspect) 자질 중한 대조분석」, 『중국어학』, 제47집, 2015(b), 22쪽.

부사의 상 자질 분석도 위의 분류를 따를 것이다. 시제는 현재시제, 과거시제, 미래시제로 나눌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예문 분석을 통하여 ‘曾經’, ‘已經’이 도대체 어떤 時相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고찰해 보겠다. 상과 시제에 대한 고찰은 술어를 떠나 불가능하므로 본고는 여러 가지 술어 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曾經’, ‘已經’의 時相 자질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Ⅲ. ‘曾經’, ‘已經’ 관련구조 의미소 時相 자질 중한 대조분석

1. ‘曾經’, ‘已經’ 관련구조와 의미소

통사구조와 의미 전달에 관해 장호득(2013b)⁹⁾은 말은 현실세계, 경험세계, 객관세계가 ‘頭腦世界’를 ‘말소리’라는 수단으로 송수신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말소리’는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뇌로 받아들이면서 시공세계를 재구성한다고 하였다. 즉 두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정보세계를 핵심 언어구조로 형식화하여 중국어의 ‘주술목[공간[주어]+시간[술어]+공간[목적어]]’ 구조로 구조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통사구조 의미 전달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어 ‘曾經’, ‘已經’과 관련하여 이들이 부사어로서 술어의 앞에 위치하면서 어떤 술어, 동태조

9) “말은 현실세계, 경험세계, 객관세계가 ‘頭腦世界’를 ‘말소리’라는 수단으로 송수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뇌세계란 구체적으로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두뇌에서 재구성한 ‘時空世界’를 말한다. 世界, 時空, 宇宙라는 낱말은 모두 時間과 空間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卅는 ‘十’이 세 개 결합하여 된 글자로 ‘三十’의 뜻이며 이것은 30년을 한 세대로 한다는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 畝는 ‘田’을 의미로 삼고 ‘介’를 소리로 삼아 형성된 글자로 ‘밭의 경계를 나타내는 공간적 개념’을 뜻한다. 또 시공의 ‘時’와 우주의 ‘宙’는 시간 개념을, 시공의 ‘空’과 우주의 ‘宇’는 공간 개념을 나타낸다. 이런 정보세계를 핵심 언어구조로 형식화하면 ‘공간[주어]+시간[술어]+공간[목적어]’로 구조화 할 수 있다. 여기에 부차적인 역할체를 보태면 공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관형어[定語]와 시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부사어[狀語]와 보어[補語]가 있다. 현대중국어 구조에서 공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역할체는 주어와 목적어 앞에 위치하며, 시간 개념을 보완해주는 역할체 가운데 부사어는 앞에서, 보어는 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 2013, 500쪽.

사, 목적어, 보어, 어기조사 그리고 다른 부사어와 공기 관계를 형성하고 통사 구조의 의미 전달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들의 시제와 상적 특징을 고찰해 보겠다. ‘曾經’, ‘已經’에 대한 고찰은 ‘曾經+술어+목적어’; ‘曾經+술어+動態助詞(了, 着, 過)+목적어’; ‘已經+술어’; ‘已經+술어+動態助詞(了, 着, 過)’; ‘已經+술어+動態助詞(了, 着, 過)+목적어+了₂’; ‘已經+술어+了₂’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2. ‘曾經’ 관련구조 의미소 및 時相 자질 분석

‘曾經’¹⁰⁾은 예전에 어떤 행위나 상황이 있던 적이 있다는 뜻으로 문장 중에서 술어의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 역할을 한다. 술어가 동사일 때 특수동사인 ‘是’가 ‘曾經’의 뒤에 출현할 수도 있다. 다음의 예문¹¹⁾들을 통해 ‘曾經’의 의미소 및 時相 자질을 분석해 보겠다.

1) ‘曾經’+술어+목적어

‘曾經’ 뒤에 위치한 술어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曾經’의 시상 자질이 달라진다. 다음은 술어가 판단동사 ‘是’일 때의 예문을 분석해 보겠다.

- (1) 这曾經是研究中国科技史的一个主要的动机。(이것은 중국과학기술사 연구의 중요한 동기이었다.)
- (2) 这曾經是近代早期科学界的一种习惯做法。(이것은 근대조기 과학계의 관습적인 방법 중 한 가지이었다.)

예문 (1), (2)에서 ‘曾經’ 뒤에 위치한 동사는 판단동사 ‘是’이다. 판단동사 ‘是’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기에 상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是’ 앞의 ‘曾經’은 술어 동사의 내적 시간 구성이 될 수 없고 즉 외적 시간 구성인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10) “曾經表示从前有过某种行为或情况。”, 吕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84, 89~90쪽.

11) 본고의 예문들은 중국 북경대학교 CCL말뭉치에서 발췌하였다. 번역문은 저자가 번역한 것이다.

‘曾經’은 한국어의 ‘_있(았)’¹²⁾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국어에서 ‘_있(았)’은 시제 범주로 보고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음은 술어가 행위동사일 때의 예문을 분석하겠다.

- (3) 余靜 **曾經**暗示管秀芬, 婚姻是终身大事, 找对象要谨慎, 不然会一辈子吃尽了苦头. (여정은 관수분에게 암시한 적이 있는데, 바로 혼인은 인생 지대사이기에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신중해야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수 있으니까.)
- (4) 当时李捷 **曾經**打电话给李延玲, 求证公安机关是否在查办他们的案件. (당시 이捷은 공안에서 자기들의 안전을 수사하고 있는지 물으려고 이연령에게 전화를 걸은 적이 있었다.)
- (5) 有人在他吃饭时给他 **打过**电话. (그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누가 그에게 전화를 걸은 적이 있었다.)

예문 (3), (4)에서 ‘曾經’ 뒤에 위치한 동사는 행위동사 ‘暗示’, ‘打’이다. 행위동사 ‘暗示’, ‘打’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기에 상 자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暗示’, ‘打’와 같은 상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는 그 앞의 ‘曾經’에 의해서 내적 시간 구성을 구현하게 되었다. 즉 동사가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될 수 있는 [離散性]¹³⁾을 갖고 있기에 그 동사 앞에 위치한 ‘曾經’은 내적 시간 구성인 상 자질인 ‘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과거경험상’을 갖고 있다. 이때의 ‘曾經’은 한국어의 ‘_적이 있다’¹⁴⁾로 번역되는데 한국어에서 ‘_적이 있다’는 상 범주이고 ‘완료상’의 하위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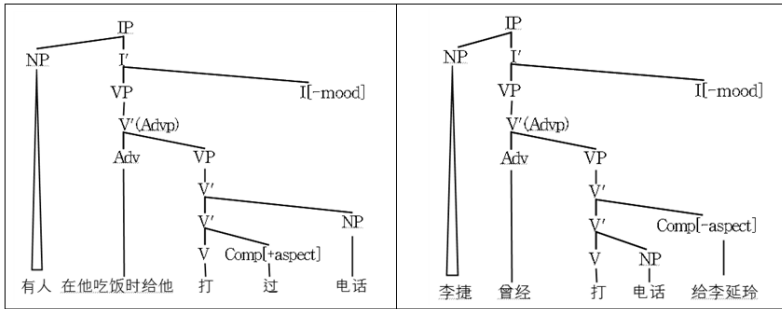
1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어미」(「끝음절의 모음이 「ㄱ, ㄴ」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과거시제를 표시하는 데는 선어말어미 ‘_있’이 중복된 ‘있었’이 쓰이기도 한다.”,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4판)』, 박이정, 2014, 319쪽.

13) ““離散性”이란 동작이나 행위를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쪼갤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시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집, 2013, 228쪽.

14)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 제이앤씨, 2013, 207쪽.

인 ‘과거경험상’이다.

그렇다면 ‘曾經’이 술어의 앞에서 ‘과거경험상’을 나타내는 상황과 같은 술어가 동태조사 ‘過’를 동반한 상황일 때 상 자질은 어떻게 다를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예문 (4) ‘当时李捷曾經打电话给李延玲’에서 ‘曾經打电话给李延玲’과 예문 (5)의 ‘给他打过电话’는 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Chomsky(1981)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그리고 장벽이론(Barriers)¹⁵⁾에 근거하여 (4), (5) 통사구조의 수형도를 그려 심층 구조에서 이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것이다.



두 예문의 수형도를 비교해보면 심층구조에서 ‘曾經’과 ‘过’의 통사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曾經’은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그 뒤에 오는 술어, 목적어, 보어를 아우르는 전체 술어구조와 통어¹⁶⁾ 관계에 있는 반면, ‘过’는 그 앞의 술어만을 수식한다. 즉 통사적으로 ‘曾經’의 통솔 범위가 ‘过’보다 훨씬 넓어 그 뒤에 출현하는 술어, 목적어, 보어 모두 ‘曾經’의 수식을 받는다. 즉 ‘曾經’은 ‘과거경험상’이라는 상 자질을 갖고 있는 동시에 술어 뒤의 ‘给李

15) Chomsky(1986)의 Barrier에 나타난 이론으로 ‘장벽이론’으로 불리는데 ‘지배결속이론’의 변화 발전된 이론이다. 이 장벽이론은 ‘X’-통사론’을 비어휘적 범주까지 확대하였으며 ‘X’-통사론’에 맞는 새로운 장벽개념을 도입하고 이 장벽개념을 통해서 지배개념과 하위인접조건을 통합하고 있다.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통어3(統御)[통:-]「명사」거느려서 제어함.”

延玲’이라는 보어도 수식하고 있기에 이때의 ‘曾經’은 보어 ‘給李延玲’의 외적 시간인 과거를 나타내기에 시제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曾經’은 상 범주와 시제 범주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過’는 그 수식 범위가 술어밖에 없기에 상적 특징만 갖고 있다. (4), (5) 두 예문에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술어의 앞에 시간을 제시해주는 시간명사 ‘当时’, ‘在他吃饭时’가 출현한 부분이다. 이런 시간명사가 술어의 앞에서 시간의 외적 구성인 시제를 나타내면서 시간의 열림 특성을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심리동사가 술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예문을 분석해 보겠다.

- (6) 他们都是我过去的邻居, 我曾經熟悉他们, 但又没有什么可以回忆的事迹让我重提。(그들은 모두 내 옛 이웃들이다. 나는 그들에 대해 익숙했었지만, 추억으로 남을만한 일들은 없다.)
- (7) 这个孤伶伶的寡妇往日曾經知道他那隐秘的爱情, 而且她的顽强救过他的命。(이 외로운 과부는 전에 그자의 음밀한 사랑을 알았었다. 그리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다.)

(6), (7)에서 ‘曾經’ 뒤에 출현한 술어는 심리동사 ‘熟悉’와 ‘知道’이다. ‘熟悉’와 ‘知道’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고 [非離散性]을 갖고 있기에 술어의 내적 시간 구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술어 앞의 ‘曾經’은 술어 동사의 내적 시간 구성이 될 수 없고 외적 시간 구성으로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曾經’은 한국어의 ‘_였(았)_’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국어에서 ‘_였(았)_’은 시제 범주로 보고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타 변화동사, 완성동사, 순간동사, 이행동사는 ‘曾經+술어+목적어’ 구조를 이루지 못하기에 말뭉치에서도 그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절에서는 술어와 목적어 사이에 동태조사(動態助詞)¹⁷⁾가 출현하는

17) 동태조사(動態助詞)는 중국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지’ 용어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구조를 고찰해 보겠다.

2) ‘曾經’+술어+動態助詞+목적어

술어 뒤에 동태조사 ‘了₁’가 출현하는 상황의 예문을 분석해 보겠다.

- (8) 苏雪林 曾經创作了大量文学作品。(소설림은 대량의 문학작품을 창작했었다.)
- (9) 麻城这块热土, 有13万儿女 曾經为新中国的诞生 献出了宝贵的生命。
(마성이라는 열정적인 토지에서 13만명의 젊은이들이 신중국의 탄생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예문 (8), (9)은 ‘曾經+술어+了₁+목적어’구조이다. 술어 ‘创作’, ‘献出’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을 갖고 있고 [離散性]을 갖고 있다. 즉 이 동사들은 내적 구성을 갖고 있고 동작을 내부적으로 쪼갤 수 있기에 상 자질이 구현되고 있는데 [+완결성] 특성이 있는 ‘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成事相(Past continuous Aspect)’이다. 성사상의 특징은 일을 성사시킨 후에도 다른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8)을 보면, ‘苏雪林’이 대량의 ‘文学作品’을 창작했었는데, 그 당시의 창작활동은 일단 일 단락되었지만, 그 후에 창작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다음 창작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曾經’은 ‘创作’, ‘献出’의 시간 개념을 묶어주는 작용을 해주고 있어 시간의 열림 특성을 끝맺게 했다. 이때의 ‘曾經’은 ‘완료상’으로 한국어의 ‘_있었_’¹⁸⁾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_있었_’¹⁹⁾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http://stdweb2.korean.go.kr/main.jsp).

19) “과거시제를 표시하는 데는 선어말어미 ‘_있_’이 중복된 ‘_있었_’이 쓰이기도 한다.” 남기삼,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4판)』, 박이정, 2014, 319쪽.

- (10) 高妈, 在她丈夫活着的时候, 就**曾經受着**这个毒。(고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모진 학대를 받았었다.)
- (11) 我国大豆**曾經有着**辉煌的历史, 现在却面临着这样一个尴尬的境地。(우리나라의 대두는 휘황찬란한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애매한 처지에 처해 있다.)

예문 (10), (11) 중 ‘曾經’의 뒤에 위치한 술어 동사 ‘受’, ‘有’는 그 뒤에 동태조사 ‘着’가 뒤따르고 있다. 동태조사 ‘着’는 지속을 나타내고 있는데 술어 동사의 상태가 어느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상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지속상’이다. 시간부사 ‘曾經’은 동태조사 ‘着’가 나타내는 지속이 과거 어떤 시간 동안 행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어떤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술어 동사 ‘受’, ‘有’가 지속되었다는 의미의 ‘과거지속상’을 나타낸다. 술어 동사 ‘受’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을 갖고 있고 [離散性]을 갖고 있다. 술어 동사 ‘有’는 비록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자질을 갖고 있는 소유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동사이지만, 그 동사의 상태가 지속성을 갖고 있기에 ‘受’, ‘有’의 앞에 출현한 ‘曾經’은 ‘과거지속상’을 갖고 있다. ‘受’, ‘有’의 앞에 위치한 ‘曾經’이 나타내는 ‘과거지속상’의 기준점은 현재 발화시점이 아닌 과거 그 동작이 끝나는 다른 한 시점일 것이다. 따라서 ‘과거지속상’은 그 동작이 끝나는 시점에서 현재 시점까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 시점에서 끝맺을 수도 있다. 이때의 ‘曾經’은 ‘과거지속상’으로 한국어의 ‘_있었_’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_있었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3. ‘已經’ 관련구조 의미소 및 時相 자질 분석

‘已經’은 부사로 그 뒤에 위치하는 술어는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수량사 등과 같은 명사성 구조일 수도 있다.

1) ‘已經’+술어

아래 ‘已經’+술어 구조의 예문들을 살펴보겠다.

- (12) 三年前他 已經離婚, 子身一人, 心情一直不佳。(3년 전에 그는 이미 이혼했고 죽 혼자라 기분이 줄곧 좋지 않았다.)
- (13) 本來他想再一次提醒苏铃, 他和华茜 已經分手。(그는 원래 소령에게 자기가 이미 화서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려고 했다.)
- (14) 首期6000多名学员 已經毕业。(1기 육천 명 넘는 회원들은 이미 졸업했다.)
- (15) 有一家门口立着一个穿黑衣服的女人, 可我们对这个村庄 已經失望。(어떤 집 대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서있었지만, 우리들은 이미 이 마을에 대해 실망했다.)
- (16) 夜晚, 田贵的孩子睡了, 他也 已經躺下。(밤이 되자 전귀의 아이들은 잠이 들었고 그도 이미 잠자리에 누웠다.)

예문 (12), (13), (14), (15), (16)은 모두 ‘已經+술어’ 구조들이다. 이런 구조 중의 술어 ‘離婚, 分手, 毕业, 失望, 躺下’ 등을 살펴보면, ‘離婚, 分手, 毕业’ 등은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고 결과를 나타내는 완성동사이다. ‘失望’은 비록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자질을 갖고 있는 심리동사이긴 하지만, 역시 어떤 생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躺下’ 역시 동사 자체의 내부 구조가 ‘동사+결과보어’이기에 술어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보어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예문들의 술어 모두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 술어 모두 [非離散性]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그 끝맺음이 있기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 동작들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술어의 앞에서 시간부사 ‘已經’은 현재 시점을 발화시간축으로 동작의 완료가 아닌 동작의 외적인 시간, 즉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로는 ‘_었_’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한국어 역시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두 예문을 통하여 ‘已經’과 술어 동사 사이에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 ‘在’가 출현했을 때의 상황을 고찰해 보겠다.

- (17) 事实上, 它 已經在变。(사실 그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
- (18) 而在发展阶段的晚期则可以发现下一阶段的心理特点 已經在萌芽。(그러나 발전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의 심리적 특징이 이

미 싹트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예문 (17), (18)의 술어 동사는 ‘變’과 ‘萌芽’이다. 이 동사들은 [離散性]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고 앞에 ‘진행상’ 자질을 갖고 있는 부사 ‘在’를 동반하고 있다. 이때의 ‘已經’은 술어의 외적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시제’이다. ‘已經’은 한국어의 ‘_고 있다’로 번역이 되는데 ‘_고_’는 ‘현재시제’²⁰⁾이다.

2) ‘已經’+술어+動態助詞

다음 예문들을 통하여 술어 뒤에 동태조사가 출현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19) 过去我们已經吃了十来年的苦头，再乱，人民吃不消，人民也不答应。

(과거에 우리는 이미 십여 년 동안 고생했었기에 다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백성들은 버텨낼 수 없을 것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 姚书琴骂得不爽，自己已經站着了，不能坐下再拍案而起一次，能做的只有拍案叫绝。(요서금은 욕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이미 그 자리에 서있었기에 다시 앉았다가 일어날 수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잘했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다.)

(21) 我还以为我没有吃饭，原来我们已經吃过了。(나는 내가 밥을 먹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이미 밥을 먹었었다.)

(19)에서 ‘已經’의 뒤에 술어 ‘吃’, 그리고 그 뒤에 동태조사 ‘了₁’가 뒤따르는 구조이다. ‘了₁’는 술어의 뒤에서 동사 ‘吃’의 완료를 나타내는 상 자질을 갖고 있는데 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成事相’이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한 동작이 일단락되면서 다른 동작 즉 ‘答应’ 등과 같은 동작이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吃’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동 자질과 상 자질을 갖고 있는 행위동사이기에 [離散性] 자질을 갖고 있다. 이때 술어 ‘吃’의 앞에 위치한 ‘已經’ 역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작이 완료됨을 나

20)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9, 241쪽.

타내고 있는 ‘완료상’ 자질을 갖고 있다. 술어 동작의 일단락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 수단이 시간부사 ‘已經’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過去’라는 시간명사가 출현하여 동작의 외적 구성인 과거시제를 나타내주며 시간의 열림 특성을 끝맺게 하였다. 이때의 ‘已經’은 ‘완료상’ 특성을 갖고 있고 한국어의 ‘_있었_’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한국어 ‘_있었_’은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20)에서 ‘已經’의 뒤에 술어 ‘站’, 그리고 그 뒤에 동태조사 ‘着’가 뒤따르는 구조이다. ‘站’은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자질을 갖고 있는 [離散性] 자질을 갖고 있는 지속동사이다. ‘着’는 술어의 뒤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주는 미완료상이다. 이때의 ‘已經’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주고 있기에 단지 동작의 외적 구성인 과거만을 나타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고의 관점은 ‘着’를 동반하는 동사의 앞에 위치한 ‘已經’은 현재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하여 현재 발화시점까지의 지속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본다. 이런 ‘已經’의 지속성 자질이 있음으로써 동작 동사 ‘站’의 앞으로의 지속이 보장된다. 즉 지금까지 서 있었고 앞으로도 한 동안은 서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뒤따르는 “不能坐下再拍案而起一次, 能做的只有拍案叫绝。”라는 구문의 출현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이때의 ‘已經’은 ‘지속상’ 특성을 갖고 있고 한국어의 ‘_어 있었_’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한국어 ‘_어 있었_’²¹⁾은 ‘지속상+과거시제’로 해석이 된다.

(21)에서 ‘已經’의 뒤에 술어 ‘吃’, 그리고 그 뒤에 동태조사 ‘過’가 뒤따르는 구조이다. ‘過’는 동태조사로 과거경험을 나타내는 ‘과거경험상’이다. 즉 술어 동작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다른 어떠한 시점까지 이어졌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것이다. 과거경험상은 완료상의 하위범주이다. 현재의 시점을 발화시점으로 한다면 과거경험상은 과거 어떤 시점에서 다른 어떠한 시점까지 동작이 분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已經’ 역시 단순한 과거시제가 아니라 술어 뒤의 ‘過’와 함께 완료상의 하위범주인 ‘과거경험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의 ‘_있었_’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어의

21) 위의 책, 2009, 309~312쪽 참조.

‘_있었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19), (20), (21)을 통해 ‘已經’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과거’나 ‘완성’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已經’이 예문 (19)에서는 ‘완성상’을 나타내지만 (20)에서는 ‘지속상’, (21)에서는 ‘과거경험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已經+술어+動態助詞(了₁, 着, 過)’ 구조 중에서 ‘已經’은 ‘완성상’, ‘지속상’, ‘과거경험상’ 등 상 자질을 갖고 있다.

3) ‘已經’+술어+動態助詞+목적어+了₂

다음 예문들을 통하여 동태조사 ‘了₁’와 목적어를 동반한 술어의 뒤에 조사 ‘了₂’가 출현하는 구조를 분석해 보겠다.

(22) 史密斯現年三十九歲, 寫小說已經寫了十五年了。(스미스는 지금 39살이고 소설을 쓴지 이미 15년 됐다.)

(23) 結果, 周總理一個螃蟹還沒吃完, 陳毅已經吃了三四只了, 壳子堆了一大盤。(결국은 주 총리께서 게 한 마리도 다 드시지 못했지만, 진의는 이미 3, 4마리 먹었고 게딱지는 한 접시 쌓였다.)

예문 (22) ‘已經寫了十五年了’에서 ‘已經+寫+動態助詞(了₁)+목적어+了₂’ 구조는 동작의 ‘결과’보다 그 동작의 ‘상태의 지속’에 초점을 두었다. 즉 ‘史密斯’가 소설을 15년 썼지만 앞으로 계속 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離散性]이 있는 ‘寫’라는 동작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문 (23)도 마찬가지로 ‘已經+吃+動態助詞(了₁)+목적어+了₂’ 구조는 술어 동사 ‘吃’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진의가 비록 게를 여러 마리 이미 먹었지만, 더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已經+술어+動態助詞(了₁)+목적어+了₂’ 구조 중의 ‘已經’은 ‘과거지속상’을 갖고 있다. 한국어의 ‘_있었_’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어의 ‘_있었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들을 통하여 동태조사 ‘過’와 목적어를 동반한 술어의 뒤에 조사 ‘了₂’가 출현하는 구조를 분석해 보겠다.

- (24) 我已經找過律師了。(나는 이미 변호사를 찾아가왔다.)
 (25) 我中午已經吃過這種菜了。(나는 점심에 이미 이 요리를 먹어왔다.)

예문 (24), (25)을 고찰해보면 ‘已經+술어+動態助詞(過)+목적어+了₂’ 구조에서 비록 술어가 [離散性]을 갖고 있고 ‘已經’이 ‘과거경험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뒤에 출현한 ‘了₂’과 함께 동작이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에 끝났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위 구조는 동작의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 이때의 ‘已經’은 술어의 내적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기에 ‘과거경험상’을 나타낸다. 특히 (25)에 ‘已經’의 앞에 ‘中午’라는 시간사가 출현하여 시간의 열림 특성을 보완해 주었다. ‘已經’이 한국어의 ‘_었었_’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어의 ‘_었었_’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4) ‘已經’+술어+(목적어)+了₂

아래의 예문들을 통하여 ‘已經+술어+了₂’ 구조 중 술어의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快’가 출현할 때와 술어가 동사가 아닌 형용사, 명사일 때의 자질을 고찰해 보겠다.

- (26) 她已經快沒有朋友了。(그녀는 곧 친구가 없어진다.)
 (27) 她抬起頭來, 眼睛已經紅了。(그녀가 머리를 들었더니 눈은 이미 빨갛게 되어 있었다.)
 (28) 瞧啊, 他們的臉已經白了, 他們的頭慚愧得抬不起了。(보아라, 그들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렸고 그들의 머리는 창피함에 들 수가 없었다.)
 (29) 我已經六十了, 熬得出熬不出也就算了, 可是只要後代人落不到鬼子手也好呀!(난 이미 60살이야, 버틸 수 있든 버티지 못하든 다 괜찮지만 후손들이 왜놈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

예문 (26)은 ‘已經+술어+了₂’ 구조 중 술어의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快’가 출현한 예문이다. 이 문장에서 부사 ‘已經’은 술어 ‘有’를 수식하는 부사어 중 하나이다. 술어의 앞에 부정부사 ‘沒’과 미래 의미의 부사 ‘快’도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때 술어동사 ‘有’는 [非離散性] 동사이다. 즉 상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已經’은 술어 동사의 외적인 시간을 나타낸다. 부사

‘快’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기에 이를 수식하는 ‘已經’ 역시 ‘미래시제’를 나타내게 되었다. 즉 술어 동사의 외적 시간인 미래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다.

예문 (27), (28)은 술어가 동사가 아닌 형용사이다. 즉 ‘已經+형용사+了₂’ 구조이다. 이런 구조 중의 ‘已經’은 술어 뒤에 출현한 ‘了₂’와 함께 술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已經’은 이런 변화의 내적 구성이 아닌 외적 시간 구성을 나타내주기에 ‘과거시제’이다. 한국어의 ‘_었(았)_’으로 번역이 되는데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예문 (29)의 술어는 명사로 이 문장은 명사술어문이다. ‘已經+술어+(목적어)+了₂’ 구조에서 ‘已經’이 명사성인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조에서 ‘已經’은 ‘了₂’와 함께 ‘변화’를 나타낸다. ‘已經’은 이런 변화의 내적 구성이 아닌 외적 시간 구성을 나타내주기에 ‘과거시제’이다. 한국어의 ‘_었(았)_’으로 번역이 되는데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27), (28), (29)에서 ‘已經’은 술어 뒤에 출현한 ‘了₂’와 함께 변화의 외적 시간인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현재를 발화시간축으로 그 변화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시간부사 ‘曾經’과 ‘已經’ 통사구조에 대한 분석과 의미소 중한 대조 및 비교 분석을 통하여 ‘曾經’과 ‘已經’ 사이의 시간 표현의 같음과 다름 그리고 이들의 상, 시제 자질의 차이에 대해 규명하였고 동시에 중국어와 한국어 통사구조 상의 같음과 다름도 고찰하였으며 이런 결과가 나아가 한국인의 중국어 교육 즉 CSL 교육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曾經, 已經 관련 구조	예 문	술어 자질	중국어 의미 범주	중국어 표지	한국어 의미 범주	한국어 대응 표지
曾經+술어 +목적어	這曾經是研究中國科技史的一個主要的動機。	[-離散性]	과거시제	-	과거시제	_있(았)_
	當時李捷曾經打電話給李延玲, 求證公安機關是否在查辦他們的案件。	[+離散性]	과거 경험상	-	과거시제	_있었_
	他們都是我過去的鄰居, 我曾經熟悉他們。	[-離散性]	과거시제	-	과거시제	_있(았)_
曾經+술어 +動態助詞 +목적어	蘇雪林曾經創作了大量文學作品。	[+離散性]	성사상, 과거시제	了 ₁	완료상	_한 적이 있_
	高媽, 在她丈夫活着的時候, 就曾經受着這個毒。	[+離散性]	과거 지속상	着	과거시제	_있었_
已經+술어	他和華茜已經分手。	[-離散性]	과거시제	-	과거시제	_있(았)_
	事實上, 它已經在變。	[+離散性]	현재시제	在	과거시제	고_
已經+술어 +動態助詞	過去我們已經吃了十來年的苦頭。	[+離散性]	완료상	了 ₁	과거시제	_있었_
	姚書琴罵得不爽, 自己已經站着了。	[+離散性]	지속상	着	지속상+ 과거시제	_어 있었_
	原來我們已經吃過了。	[+離散性]	과거 경험상	過, 了 ₂	과거시제	_있었_
已經+술어 +動態助詞 +목적어+了 ₂	史密斯現年三十九歲, 寫小說已經寫了十五年了。	[+離散性]	과거 지속상	了 ₁ , 了 ₂	과거시제	_있었_
	我已經找過律師了。	[+離散性]	과거 경험상	過, 了 ₂	과거시제	_있었_
已經+술어 (+목적어) +了 ₂	她已經快沒有朋友了。	[-離散性]	미래시제	快, 了 ₂	과거시제	곧_
	她抬起頭來, 眼睛已經紅了。	[-離散性]	상태의 변화	了 ₂	과거시제	_있(았)_
	我已經六十了, 熬得出熬不出也就算了!	[-離散性]	상태의 변화	了 ₂	과거시제	_있(았)_

첫째는 ‘曾經’은 상 범주의 하위 범주인 ‘과거경험상’, ‘성사상’, ‘과거지속상’ 등 자질을 갖고 있고 시제 범주의 하위 범주인 ‘과거시제’ ‘과거경험상’ 등 자질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어의 ‘_있(았)_’, ‘_있었_’, ‘_적이 있_’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曾經’은 하나의 통사구조에서 상과 시제 두 자질의 기능을 모두 겸할 수 있는 겸직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둘째는 ‘已經’은 ‘완료상’과 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과거경험상’, 그리고 미완료상의 하위범주인 ‘과거지속상’ 등 자질을 갖고 있고 시제 범주의 하위 범주인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등 시제 자질을 갖고 있으며 ‘상태의 변화’ 자질도 갖고 있다. 한국어의 ‘_었(았)_’, ‘_고_’, ‘_었었_’, ‘_곧_’ 등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셋째는 ‘曾經’과 동태조사 ‘過’를 비교하자면 ‘曾經’은 상 범주와 시제 범주를 겸하고 있다지만 ‘過’는 그 수식 범위가 술어밖에 없기에 상적 특징만 갖고 있다. 그리고 심층구조에서 ‘曾經’은 술어의 앞에서 술어를 포함한 술어 뒤에 출현한 조사, 목적어, 보어 모두와 통어 관계를 갖고 있지만, ‘過’는 그 앞의 술어만 수식한다.

넷째는 ‘已經’이 ‘진행상’ 자질을 가진 부사 ‘在’를 수식할 수 있지만, ‘曾經’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已經’은 형용사 술어와 명사성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는 이렇게 시간 표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어의 ‘과거경험상’, ‘성사상’, ‘과거지속상’ 등 상 자질과 ‘과거시제’ 자질을 갖고 있는 시간부사 ‘曾經’, 그리고 ‘과거경험상’, ‘과거지속상’ 등 상 자질 그리고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등 시제 자질을 갖고 있는 시간부사 ‘已經’ 등이 한국어에서는 ‘완료상’, ‘지속상’ 자질과 ‘과거시제’ 자질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의 시간 체계는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의 사유 방식의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9.
-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4판)』, 박이정, 2014.
-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 제이앤씨, 2013.
- 유 위, 한서영, 김정주, 「말뭉치를 통한 현대중국어 早就·已經·曾經의 통사 - 의미 비교 연구」, 『中國言語研究』, 45집, 2013.
- 장호득, 「현대중국어의 ‘沒’·‘有’ 및 相(aspects)」, 『중국어문학』, (35), 2000.
- _____,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的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 연구』 33집, 2013.
- 한경숙, 「현대중국어 ‘來着’ 相적 특징 중한 대조분석」, 『비교문화연구』, 33집, 2015(a).
- _____, 「현대중국어 虛詞 ‘的’ 상(aspect) 자질 중한 대조분석」, 『중국어학』, 제47집, 2015(b).
- _____, 「중국어 부사 ‘在’, 동태조사 ‘着’ 相 자질 중한 대조 분석」, 『東洋學』, 제61집, 2015(c).
- 鄧世平, 薛敬敬, 「句法平面上‘已經’和‘曾經’的區別」, 『高等教育在线』, 05期, 2010.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84.
- 曹凤霞, 「時間副詞‘曾經’‘已經’的時態用法」, 『松遼學刊(人文社會科學版)』, 06期, 2002.
- Chomsky, Noa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1981.
- 중국북경대학교 CCL말뭉치(<http://ccl.pku.edu.cn>)
- 국립국어원,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 ABSTRACT

Time Adverb ‘Cengjing (曾經)’ and ‘Yijing (已經)’ Tense and Aspec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and South Korea

Han, Keung-Shuk

Analysis of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 modern Chinese adverbs for time ‘Cengjing (曾經)’ and ‘Yijing (已經)’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tenses and aspects of the terms. The corresponding Korean words were examined and the terms in both languages were compared.

The syntactic structures used in China and South Korea were found to be different. We hope the study of the Chinese language will help Korean students.

‘Cengjing (曾經)’ specific projects with ‘aspect’ of, ‘Past experience aspect’, ‘Past continuous aspect’, ‘Past continuous aspect’ in the past tense. [ED: unclear, please reword] These correspond to ‘_였 (았)_’, ‘_였였_’ in the Korean language.

‘Yijing (已經)’ has ‘finished phase’ of concrete projects, ‘Past experience aspect’, ‘Past continuous aspect’, also has a specific project tense, the ‘past tense’, ‘present tense’, ‘future tense’, and so tense. [ED: unclear, please reword] Adjectives can also be modified with a ‘change of status’. These correspond to ‘_였 (았)_’, ‘_고_’, ‘_였였_’, ‘_곧_’ etc. in Korean.

‘Cengjing (曾經)’ and the dynamic auxiliary ‘Guo (過)’ were compared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the aspect and tense features. However, ‘Guo (過)’ can only modify the predicate verb, so it possesses only aspect characteristics. ‘Cengjing (曾經)’ modifies the range more widely.

‘Yijing (已經)’ may be modified by the adverb ‘Zai (在)’ whereas ‘Cengjing (曾經)’ may not. Additionally, ‘Yijing (已經)’ can be modified by predicate adjectives and noun predicates, while ‘Cengjing (曾經)’ cannot.

Key Words

Cengjing(曾經), Yijing(已經), aspect, comparative analysis, past conduct aspect, past continuous aspect, past continuous aspect.

474 비교문화연구 제42집 (2016.3.)

논문접수일: 2016년 0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